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씨피엔터테인먼트 지예은,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올해의 엔터테이너 수상! 대중이 직접 선택한 2026 최고의 예능 대세!

2026. 9. 4.

지예은 관련 이미지

배우 지예은이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올해의 엔터테이너 부문을 수상하며 예능계 확실한 대세 행보를 증명했다.

지예은은 지난 1일(화) 개최된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엔터테이너’ 부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매년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 및 인물을 선정하는 시상식인 만큼, 이번 수상은 그간 예능 활동에서 쌓아온 막강한

대중적 호감도와 존재감을 입증한 결과다.

지예은은 특정 채널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예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3를 비롯해 <런닝맨>, <왕은 무얼 자셨는가>, <미운 우리 새끼> 등 지상파와 OTT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특유의 솔직하고 통통 튀는 에너지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채널과 포맷의 경계를 허무는 지예은만의 유연한 캐릭터 소화력이 빛을 발했다. 화제의 오피스 코미디 <직장인들>에서는 세 시즌 연속 핵심 멤버로 출연하며 주어진 상황에 즉각 몰입하는 순발력과 찰진 리액션으로 애드리브의 맛을 완벽히 살려내고 있다. 이어 <왕은 무얼 자셨는가>에서는 역사와 음식이라는 이색 소재에 유쾌한 에너지로 프로그램의 온기를 더했다.

나아가 <런닝맨>에서는 거침없는 리액션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베테랑 멤버들과의 티키타카 속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능청스러움은 물론, 예측 불허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성으로 매회 웃음과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엉뚱한 매력과 예고 없는 돌발 리액션 등 날것의 재미를 더하며 프로그램의 몰입도와 활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이다.

이처럼 지예은은 출연하는 모든 예능에서 타율 높은 웃음을 완성하며 '믿고 보는 예능 치트키'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대중의 선택으로 독보적인 예능감을 인정받은 지예은이 향후 또 어떤 콘텐츠에서 차원 다른 대세 저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